

# Beyond Green, Colorful Green

KC그린홀딩스  
제 133호 KC뉴스레터



## 제 133호 KC뉴스레터

2024년 3분기에 있었던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 목차

### 대외 홍보

-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안전 관리

- KC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대외 수상/인증

- KC안전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취득 및 교육기관 업무협약 체결
- KC안전기술,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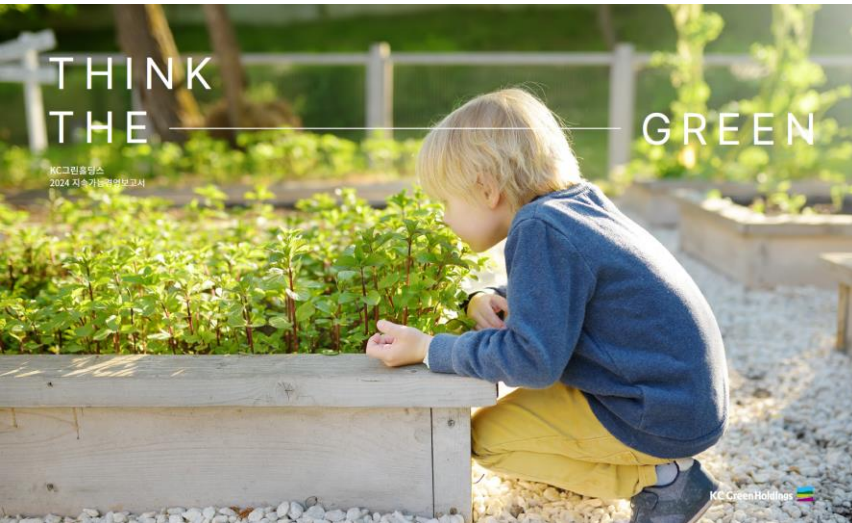
### 기타

-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 [ESG]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 - ③ 토지 황폐화 방지
- [환경] 투명 방음벽의 이면: 조류 충돌을 막는 작은 노력
- [안전] 안전한 운전을 위한 습관 점검

- 
- 발행일 : 2024년 10월
  - 발행주관 :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 문의/발간 : yuseung@green-kc.com

#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KC그린홀딩스는 2024년 8월, 열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KC그린홀딩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백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들이 기울인 노력을 공유한다.

이번 보고서는 중대 토픽으로 선정된 5개 주요 이슈에 대한 활동을 보고한다:

- ① 구성원의 근로 안정성을 위한 복지 및 제도 개선
- ②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강화
- ③ 구성원을 위한 안전보건시스템 강화
- ④ 구성원의 윤리강령 준수와 부패 방지
- ⑤ 유해물질 배출량 저감

이 외에도, KC그린홀딩스 관계사의 환경 및 사회 성과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KC그린홀딩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끝)

## 대외 홍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기타

< 3 >



## KC안전보건협의회 개최



지난 7월 4일, KC안전보건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날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후 협의회가 이어지는 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10개 관계사에서 18인의 안전보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혈관 질환 예방 방안,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 중 하나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참여했으며,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솔루션이 전년에 비해 다수 소개되었다.

오후에는 KC안전보건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관계사들의 2024년 안전 수준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상황과 화재 발생 대응 현황이 공유되었다. 대부분 관계사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이행했으며, 최근 발생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한 '각사별 비상대피 계획 및 소화 설비 현황 점검 결과'가 공유되었다.

이어 위험성 평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에 위험성 평가의 기본 방침이 지시규제 방식에서 자율규제로 변경된 사항과,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강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공유되었다. 또한 4분기에 열릴 예정인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개최도 검토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각 사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규제 변화와 기술적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KC안전보건협의회 개최

대외 수상/인증

기타

< 4 >





# KC안전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및 교육기관 업무협약 체결



KC안전기술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과 교육기관과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 8월 12일 KC안전기술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취득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연구조직의 육성과 함께 각종 조세, 인력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KC안전기술은 안전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불탱크 내 설치 해체가 용이한 강관 비계 시스템 개발
- ② 불탱크 강제 배기 시스템 개발
- ③ ATIS 비계 시스템 개발
- ④ 폐수 슬러지 준설 시스템 개발

이어 8월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안전보건센터는 근로자 안전교육 및 직무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 체결과 동시에 명칭을 '사단법인 케이씨안전기술센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협약에는 명칭 변경, 협력 체제 수립, 발전적 운용 등이 포함되었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KC안전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취득 및 업무협약 체결

KC안전기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타

< 5 >



# KC안전기술,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취득

지난 9월 18일, KC안전기술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KC안전기술은 지난 2012년 첫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한 이후,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향후 3년간 유효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의 공동 명의로 인증서와 인증패,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사례집 발간, 매체 홍보 등으로 기업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KC안전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취득 및 업무협약 체결

KC안전기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타

< 6 >



#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이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괴롭힘'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이나 법률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제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요즘은 문제 해결에 법적 절차가 개입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사회적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규정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행위가 다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누적된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직원이 인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특정 개인이 겪는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더 깊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KC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KC 핵심가치 중 상호존중과 열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KC그린홀딩스는 매년 10월~12월을 KC윤리경영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KC 전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기타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ESG] 자발적 탄소시장: 토지황폐화 방지

[환경] 투명 방음벽의 이면

[안전] 안전한 윤전을 위한 습관 점검

< 7 >



## [넷제로③]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노력 – 토지 황폐화 방지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탄소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이나 정책은 건물, 에너지, 산업,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노력과 속도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토지 황폐화 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이다.

지구 토양의 상층부 1m에는 최대 2,000GtC(기가톤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의 약 2.4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토지가 황폐화되면 토양 속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어 온실가스 급증과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토지 황폐화 중립은 대기 중의 탄소뿐만 아니라 토양 내의 탄소까지 함께 관리하는 개념으로, 토지 황폐화를 방지해야만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의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인 토지 황폐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탄소 과다 배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금융은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축은 정부나 기업만의 해결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은 B2B(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 탄소 과다 배출 기업들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대중들도 쉽게 탄소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자발적 탄소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더해질 때 우리는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기타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ESG] 자발적 탄소시장: 토지황폐화 방지

[환경] 투명 금융벽의 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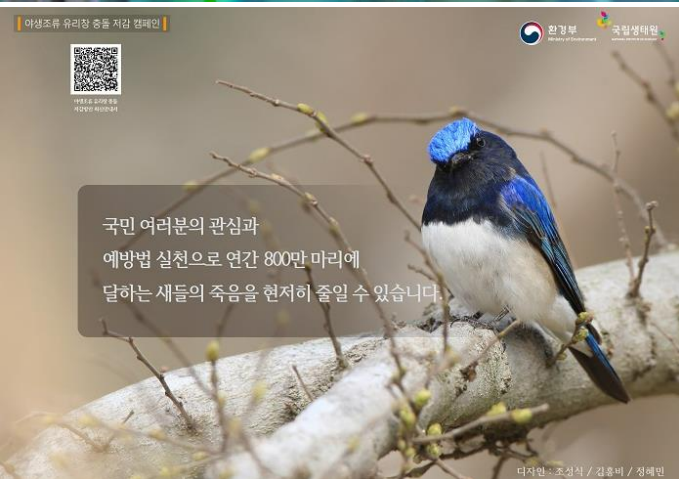
[안전] 안전한 운전을 위한 습관 점검

< 8 >





## [환경] 투명 방음벽의 이면: 조류 충돌을 막는 작은 노력



도시에서는 도로와 철도 주변에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 이 방음벽은 기존의 불투명한 구조물보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며 시각적으로도 개방감을 주면서도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도시 미관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 쾌적해졌다.

하지만 이런 투명 방음벽은 조류에게 큰 위협이 되곤한다. 새들은 사람과 달리 눈이 양옆으로 달려있어 사방을 빠르게 파악해 천적을 피할 수 있지만, 정면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 방음벽을 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5\*10 격자무늬 스티커나 망금류 스티커 부착, 그리고 야생 조류 충돌 예방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투명 방음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한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했으나 방음벽에 스티커를 부착해 새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면서 폐사체가 96%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분석 결과, 설치 전 조사당 폐사체가 2.8마리였으나 설치 후 0.1마리로 대폭 줄어들었다.

정책적인 해법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제안과 요구는 법이 지속적으로 생태계의 균형과 유지를 위해 개정되는데 도움이 되며, 방음벽 외에도 일상 주변에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기타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ESG] 자발적 탄소시장: 토지황폐화 방지

[환경] 투명 방음벽의 이면

[안전] 안전한 운전을 위한 습관 점검

< 9 >



## [안전] 안전한 운전을 위한 습관 점검



자동차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품이 마모되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고장은 불시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본인 차량의 부품 교체 시기가 타인에 비해 빠르다면 운전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연료 경고등이 켜진 뒤 주유하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자동차는 미사용 시 불순물이 연료통에 축적되기 때문에 경고음을 듣고 주유소를 찾는 경우가 잦다면, 퇴적물이 연료 펌프나 필터로 들어가 내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멈춘 상태에서 운전대를 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면 타이어와 조향 장치에 충격이 가해져 마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셋째,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어 박스에 부담이 가해져 고정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경사로를 운행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넷째,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두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빠르게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보다는 낮은 기어로 바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급출발과 급정거를 피해야 한다. 갑자기 출발하거나 급하게 정지하는 것은 자동차에 큰 부담을 주며, 순간적인 가속은 연료 소모량을 증가시키고 급정거 또한 제동 장치에 무리를 주면서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대기, 신호 무시 등의 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운전 습관은 자동차의 수명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을 유발해 운전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운전습관과 꾸준한 차량 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끝)

대외 홍보

안전 관리

대외 수상/인증

기타

[H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ESG] 자발적 탄소시장: 토지황폐화 방지

[환경] 투명 방음벽의 이면

[안전] 안전한 운전을 위한 습관 점검

< 10 >



